

천년의 깊은 잠 속에 있는 '처용' 깨워 무대에 올려

글 서연호 고려대 교수



남경주, 강부자가 열연한 처용과 처용모

울산광역시 제작한 뮤지컬 <처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주체이고,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전제로 내세웠으며, 문화적인 지역정체성과 대중성(보편성)을 창출하고자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작비의 투자 면에서도 국내 초유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업은 성공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아울러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동시에 관련된 의의 깊은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울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이 공연을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처용의 고장’ 울산시의 자긍심 담은 뮤지컬 <처용>

“울산은 처용의 고장이다. 뮤지컬 처용은 설화와 함께 천년의 깊은 잠 속에 있는 처용을 일깨워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처용으로 되살리고자 한다. 처용은 우리와 똑같이 사랑과 미움,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웃의 모습이며 애증의 얼굴이지만, 용기와 슬기로, 관용과 화해로 다 살핌의 평화를 열어가는 사랑과 용서의 화신이다. 이런 처용을 통해 우리 시대의 분단과 갈등, 대립의 문화를 넘어서서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싶다”고 울산시장은 요지를 밝혔다.

이러한 의도와 처용의 성격을 울산의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대본을 맡은 차범석 예술원 회장은 몇 가지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 설화적 환상과 역사적 현실을 공존시키고 넘나들면서 시민들과 친근한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시에 가무에 능한 무계 출신으로 처용을 부각시켜 음악극에 어울리는 예술성을 이룩해 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부담 없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뮤지컬의 특색이니만큼 실험적이거나 전위적인 시도는 삼가되, ‘우

리 것’의 재창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작품은 처용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고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였다. 작가는 처용을 ‘용왕의 상징이자 서민에능형 청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작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처용은 아랍인설(아랍에서 온 상인), 상수리설(上守吏, 지방토호의 자식을 중앙에 볼모로 잡아두는 제도), 박수설(무속신앙에서 연유된 수호신), 승려설(불교신앙에서 연유된 도사), 종규설(鐘馗, 중국의 민속신인 종규의 전승에서 유래) 등으로 해석되었다. 작가는 처용의 위상을 무속 및 불교설화와 일면 관련시키면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방랑하는 청년으로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는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돕고 예능을 통해 주위를 즐겁게 만드는 활달한 청년이다.

“네가 자라 세상에 눈떴을 때, 너는 바람 따라 떠났지. 에미의 마음도 모르는 채, 바람처럼 떠돌았지. 그러나 에미는 안다. 바람의 아들의 그 마음을, 에미는 안다. 바람의 아들에게도 꿈은 있을 테니까.” 이것은 처용모가 부르는 노래가사의 일부이다. 바람의 아들, 바람처럼 떠도는 아들, 꿈이 있는 아들은 바로 처용의 성격을 은유한 것이다.

처용의 위민사상·평등정신 구현시켜

처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의 설정도 서민적이다. 육손이는 처용의 마을 친구이다. 손가락이 6개여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얼굴에 있는 심한 흉터는 한층 더 그를 콤플렉스에 빠지게 한다. 그는 처용을 사모하는 이웃 처녀 이슬이를 짝사랑한다. 이슬이를 사랑할수록 처용에 대한 도전과 갈등이 깊어진다. 바로 이 육손이가 나중에 역신(疫神)의 실체로 드러난다. 그는 처용의 아

내인 공주의 침실에 잠입하여 정사를 벌이게 된다.

헌강왕 앞에 불려간 처용은 천부경을 하사받고, 공주와의 혼인이라는 의외의 충격에 부딪힌다. “그건 아니 됩니다. 이 몸은 천민의 자식으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민초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혼인을 완강히 거부하지만, 급간벼슬이 내리고 하루아침에 부마가 된다. 그러나 처용부부의 생활은 신분과 의식의 차이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한편, 육손이와 이슬이의 처용에 대한 갈등은 커진다.

육손이는 부처님에게 간절히 기원한다. 자신을 정상적인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 기도는 실제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의식의 재현일 수도 있다. 드디어 그는 처용으로 변신한다. 여기서 처용의 얼굴 가면이 응용된다. 자신의 변신을 확인한 그는 공주의 침실로 뛰어든다. 공주는 그를 남편으로 알고 침실에 함께 든다. 뒤늦게 귀가한 처용은 육손이를 발견하고, 저 유명한 〈처용가〉를 노래한다. 육손이와 공주는 처용의 의연한 자세와 위용에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

나는 돌아가리라.
미움도 분노도 넘어
동해바다 사랑이 넘실거리는
저 물결 개운포로 나는 돌아가리라.
내 마음 분노, 그 분노를 넘어
사랑을 노래하는 물결치는 동해바다
그곳 개운포로 나는 돌아가리라.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 세상사
모두 버리고 가는 세상사
관용의 사랑을 전해 주며 사랑으로 물결처럼
나는 돌아가리라.

이것은 처용의 마지막 귀거래사(歸去來辭)이다. 처

용은 다시 서민의 세계로 되돌아온다는 메시지다. 처용의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이슬이는 실성한 여인이 되고 만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처용의 위민사상(爲民思想)과 평등정신(平等精神)을 구현시켰고,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용신(龍神)의 상징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헌강왕이 하사하는 천부경을 들고, “이 거울은 세상을 사랑으로 비추는 거울이니, 내가 어딜 가나 세상을 사랑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 험벗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고, 사랑과 관용을 세상에 전하는 증표로 삼을 것이지요”라는 처용의 말에서도 이런 작가정신을 찾을 수 있다.

울산시의 훌륭한 시도, 지속적 보완작업 따라야

애초의 취지가 뮤지컬이었던 만큼, 작곡자 이준호의 음악에 대한 기대는 어느 분야보다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10장 가운데서, 합창(〈우리에게 빛을〉 외 4곡), 독창(〈적막강산〉 외 11곡), 독창·합창(〈서라벌의 꿈〉 외 3곡), 이중창(〈사랑은 눈으로〉 외 4곡), 삼중창(〈사람도 가지가지〉 외 1곡), 이중창·합창(〈인생의 굴레〉), 무용곡(〈처용의 춤〉 외 5곡) 등 많은 곡이 선을 보였다. 뮤지컬이라고 해도 과중하고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음악의 비중이 높은 연극이었다. 한마디로 이준호의 작곡은 대중적이고 안정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무자 최청자의 무용은 매우 활력에 넘쳤고, 무대미술가 박동우의 장치는 야외와 실내, 궁중과 서민마을, 통일신라시대의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대조적으로 잘 드러냈다. 음악에서 ‘처용의 주제곡’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것과 무용에서 연극무용보다는 장식무용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공연에서 이희정(육손이 역)과 오만석(일관 역)의 열연은 돋보였다. 이희정은 자신의 불구성과 콤플렉

스를 극적으로 잘 드러내어 감동을 주었고, 오만석은 코믹한 표현으로 역설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 남경주(처용 역)는 시종일관 극을 주도할 만큼 우수한 음악성을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 춤'을 통해서 관객을 압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부자(처용모 역)·김성기(헌강왕 역)·강효성(공주 역)·배해선(이슬 역) 등도 좋은 기량을 보여 극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

총연출을 맡은 임영웅은 이번 공연의 성공을 이끈 선도자이고, 지휘자 이태은의 역할도 믿음직스러웠다. 조연출(이지순, 이국희, 박태환)·협력연출(김삼일, 채윤일, 박용하)·조안무(허현주)의 숨은 역할도 지나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에서 울산 현지의 배우와 무용수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처사였다.

울산광역시시는 뮤지컬 <처용>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뮤지컬이 완성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시의 고정 레퍼토리를 삼자고

한다면, 장차 한두 차례의 수정·보완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일차적인 성공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재공연의 성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수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두고자 한다. 대본에서는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이 당대의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보다 의미 있게 부각되어야 하고, 역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처용과 육손이의 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이 강한데, 처용과 역신의 관계는 역사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것처럼 오랜 전승력을 유지해 온 것인 아닌가 생각한다.

음악에서는 <처용의 노래>와 <태화강의 노래>는 시민들에게 널리 불릴 수 있도록 새롭게 작곡되기를 바란다. 무용에서는 장식무용을 줄이고, 극의 전개와 조화되는 연극무용을 보강하고, 특히 '처용무'의 이름에 걸맞게 처용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울산시의 훌륭한 시도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 🌈



헌강왕



이슬이의 탐돌이 장면